

호주, 축산물 수급전망

권 오 복*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영향으로 수입 쇠고기의 70% 이상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미 FTA에 체결에 따라 그동안 수입이 중단되었던 대미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의 미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호주는 초지에 바탕을 둔 쇠고기와 양고기는 강한 경쟁력을 지니지만 곡물 사료에 의존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호주의 2007년 3월 농업전망대회에서 발표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전망에 대해 정리한다.

1. 쇠고기

2007-08년 호주의 산지(saleyard) 쇠고기 가격은 비육업자 (restockers)등의 생우 수요 증가 및 생산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0% 상승한 kg당 3달러 30센트로 전망된다. 2003년말 미국의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일본의 대미 쇠고기 수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07-08년 호주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수요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호주내 쇠고기 생산 증가와 해외시장에서 호주의 주요 경쟁국들과 경쟁 심화로 쇠고기 가격이 정체 내지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조치-빠가 포함되지 않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가 완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은 광우병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호주의 쇠고기 산지 가격 및 생산 추이



중기적으로 호주 쇠고기 생산이 증가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호주의 산지 쇠고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6-07년 기준 호주의 산지 쇠고기 실질 가격은 kg당 2달러 30센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 입식에 따라 쇠고기 공급 줄어들 듯

2006-07년 도축두수는 호주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한 가뭄에 따라 전년보다 5% 증가한 890만 두에 이를 전망이다. 도축두수 증가에 따라 2007년 6월 호주의 전체 소 사육두수는 2,770만두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남부지역에서 8월경에 다시 가뭄이 발생하면 재입식용 암소 보유 두수가 증

가할 것이다. 2008년 6월까지 호주의 전체 소 사육두수는 2,820만 두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뭄의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 사육두수가 가뭄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전망기간중 쇠고기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쇠고기 산지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그에 따라 사육농가들의 사육 두수 확대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009-10년에 2,910만두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7-08년 도축 두수 감소 예상

2007-08년의 경우 사육두수 감소와, 재 입식으로 인한 송아지 사육두수 감소로 쇠고기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에 따라 2007-08년 쇠고기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3% 감소한 860만 두에 이를 것이고, 쇠고기 생산량은 2% 감소한 21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는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조건 호전과 사육규모 확대로 평균 도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10-11년 호주의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생산량은 230만 톤에 달할 것이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여 한국 및 일본시장에 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막혀 이 지역에 대한 호주의 수출이 늘어나 2006년 도축두수가 2003년보다 25% 많은 260만 두에 이름에 따라 이후에 소의 사육이 확대되었다. 또한 2006년 호주의 대다수 지역에 불어 닥친 가뭄으로 호주 시장 출하를 위한 최종 비육 두수가 증가했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곡물급여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료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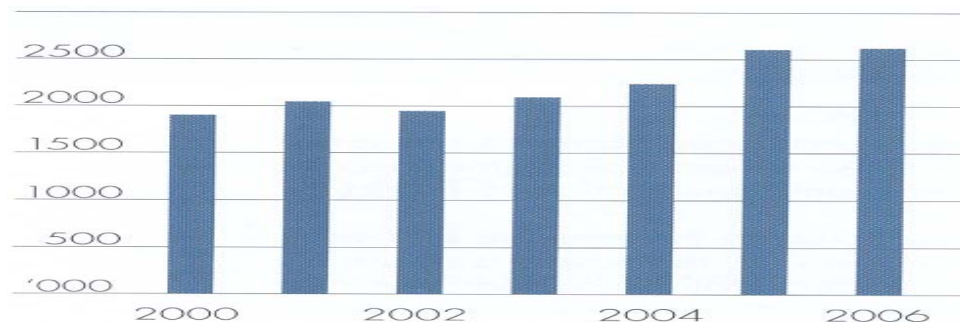
2007-08년 쇠고기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연간 호주 국민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34.3kg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이 서

서히 회복하여 2011-12년에는 2006-07년 보다 1% 많은 36kg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양고기와 비교한 쇠고기 소매가격은 미미하나마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쇠고기 수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07-08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은 호주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로 전년에 비해 3% 감소한 925,000톤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쇠고기 수출액은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에 비해 7% 상승한 46억 달러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볼 때 사육 및 도축 두수 증가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2011-12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은 2006-07년보다 8% 증가한 10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액은 2006-07년 가격 기준으로 약 36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수출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띠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호주의 소 출하 추이



미국-일본간 쇠고기 교역 재개

2006년 7월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는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31개월간 지속된 대미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수입재개를 허용하였다.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면서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송아지를 미 농무성이 승인한

품질평가시스템(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월령을 파악하거나, 미국 기준으로 A40 또는 그 이하의 생리학적 성숙도에 이를 때 20월령으로 분류하게 된다. 그런데 도축된 소의 5%만이 월령을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을 갖고 있다. 도축된 소 중 9% 이하만이 A40 또는 그 이하의 소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소 도축이 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본의 대미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입은 광우병 발병 이전의 수입량 수준에 밀돌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입 기준에 부합하는 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재개된 2006년 6월 이후 5개월간 일본의 대미 쇠고기 수입은 4,200톤에 불과하였다. 2003년 일본이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대미 쇠고기 수입은 연간 26~30만 톤에 달했었다. 최근 미국은 일본의 수입 규정을 바꾸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쇠고기 안전성을 결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위험 기준을 채택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의하면 특정 BSE 위험 물질이 제거되면 30개월령까지의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 교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수의국 기준 채택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30개월령까지의 쇠고기 수입을 확대할 것 같지는 않다.

중기적으로 볼 때 일본의 대미 쇠고기 수입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에서 A40 또는 그 이하로 분류된 소의 가용성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를 원하는 부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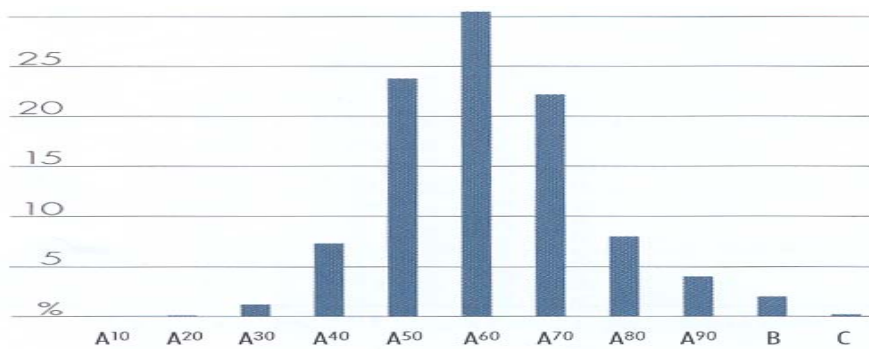
*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쇠고기 구제조치(safeguard: SG)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글의 뒷부분에 제시한 부록 참조

표 1 호주의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전망

	단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11-12
산지가격							
명목	호주 센트/kg	320	322	299	330	310	260
실질	호주 센트/kg	340	332	299	322	295	230
사육두수	백만두	27.8	28.6	27.7	28.2	28.6	28.7
쇠고기	백만두	24.7	25.5	24.8	25.3	25.7	25.4
도축두수	천 두	8,853	8,401	8,863	8,600	8,800	9,300
생산량	천톤	2,162	2,077	2,175	2,111	2,172	2,322
1인당소비	kg	35.6	35.4	35.3	34.3	34.7	35.8
소매가격							
명목	호주 센트/kg	1,449	1,540	1,550	1,580	1,560	1,585
실질	호주 센트/kg	1,542	1,588	1,550	1,541	1,485	1,401
수출량	천톤	948	892	952	925	955	1,025
대미국	천톤	363	295	286	270	280	355
대일본	천톤	419	388	400	390	380	430
대한민국	천톤	91	121	161	120	100	115
수출액							
명목	백만호주달러	4,584	4,272	4,332	4,645	4,505	4,055
실질	백만호주달러	4,879	4,406	4,332	4,532	4,288	3,584
산동물수출	천 두	574	549	600	660	710	790

주 : 1)도체중량, 2)2006-07년 호주달러, 3)6월30일 기준, 4)신선, 냉장, 냉동 선적 중량
자료 : ABARE

그림 3 미국 쇠고기 도체 분류



미국 식육수출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대체로 일곱 가지 부위로 전체 도축 중량의 15%에 불과하다. 월령 증명 프로그램에 제한된 숫자의 농가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2007년 미국의 쇠고기 생산 전망하에서 미국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은 16만 5,0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1-12년까지 대일본 수출이 가능한 미국의 쇠고기는 약 18만 톤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량은 광우병 발병전인 2003년 미국의 대 일본 쇠고기 수출량인 27만 톤보다 9만 톤 정도 적은 물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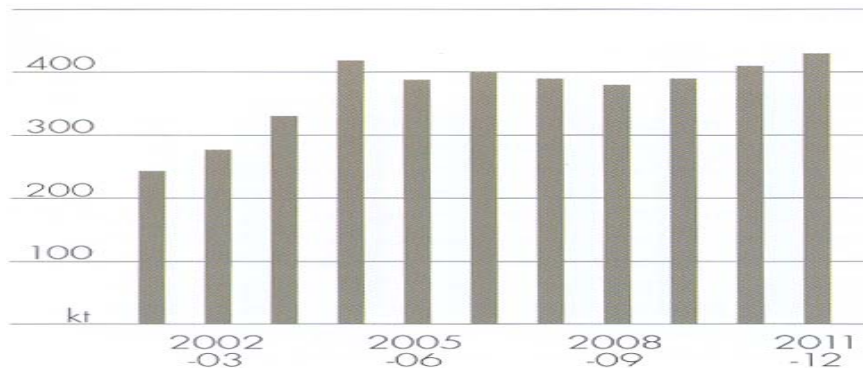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 계속 강세 전망

2006-07년 호주의 대일 쇠고기 수출은 일본시장에서 호주산 수요 증대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4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호주의 대일 쇠고기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곡물 급여 쇠고기와 목초 급여 쇠고기 수출 가격은 각각 4%, 11% 상승하여 kg당 5달러 22센트, 4달러 80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7-08년에는 수출가격 상승과 수출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 심화로 호주의 대 일본 쇠고기 수출이 2% 정도 감소하여 39만 톤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까지 호주의 대 일본 쇠고기 수출은 43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호주 소의 산지 가격 하락과 일본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 일본 수출은 미국에서 A40 쇠고기의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미국의 대 일본 쇠고기 수출확대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호주와 일본 정부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만일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지금의 전망보다 더 많은 양의 호주산 쇠고기가 일본으로 수출될 것이다.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쇠고기는 3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FTA로 인해 그러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면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호주 쇠고기 산업이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 호주의 대 일본 쇠고기 수출 전망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도 늘어 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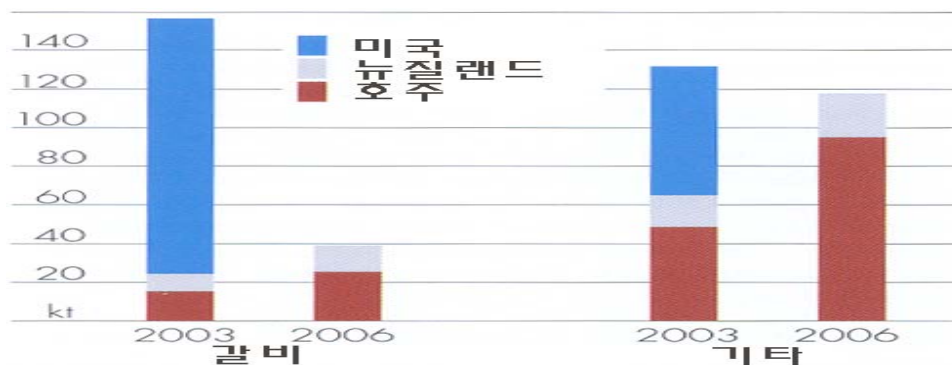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1인당 소득 증대 등으로 한국의 쇠고기 소비는 전망기간 계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의 쇠고기 생산이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입쇠고기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광우병 발병 이전, 미국은 한국의 수입 쇠고기 중 70%를 공급했는데,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60%가 갈비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이래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 호주의 대 한국 쇠고기 수입은 40%가 증가한 15만 톤에 달했다. 호주의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이 늘었지만 수출 부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06년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쇠고기의 25%는 갈비였다. 갈비 생산에서 미국이 호주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 미국산 갈비가 호주산 갈비의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현재 미국산에 적용되는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할 경우 2007-08년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완화

되면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 쇠고기와 경쟁이 심화되어 2007-08년 호주의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은 전년에 비해 25% 감소한 12만 톤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부위별 한국의 쇠고기 수입 추이



전망기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적용하던 수입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는 미국산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2011-12년 호주의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은 2006-07년보다 약 28% 감소한 11만 5,000톤으로 전망된다.

미국시장에서 우루과이와의 경쟁도 심화될 듯

2006년 우루과이의 대 미국 쇠고기 수출은 칠레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수요 증가에 따른 우루과이 쇠고기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에 비해 47%가 감소했다. 아르헨티나가 임시로 단행한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 브라질에서 광우병 발병 등에 따라 쇠고기 주요 수입국들의 대 브라질 쇠고기의 금수 조치 등에 따라 2006년 남미의 쇠고기 수출 공급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공급 제한으로 인해 칠레와 러시아 연방에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우루과이산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7년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금지 조치가 완화되고, 많은 국가

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우루과이 쇠고기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우루과이 쇠고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따라서 전망기간 미국의 쇠고기 가공품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호주의 대 미국 쇠고기의 중기 수출 전망은 밝은 편

2006년 미국에서 가뭄으로 도축 두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사육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다. 2007년 기후조건이 예년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소 사육농가가 재 입식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도축 두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쇠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쇠고기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7-08년 호주의 대 미국 수출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감소할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은 호주내에서 재입식 증가에 따라 암소 도축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 시장에서 우루과이산 쇠고기와 경쟁 심화이다. 결과적으로 2007-08년 호주의 대 미국 쇠고기 수출은 전년 대비 5% 가량 감소한 27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호주 소의 산지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호주의 대 미국 쇠고기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1-12년까지 호주의 대 미국 쇠고기 수출은 2006-07년 수준보다 24% 증가한 35만 5,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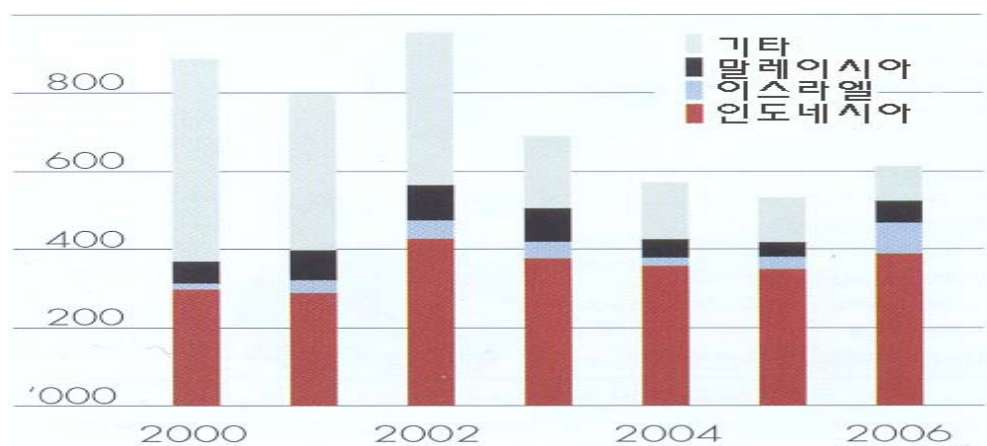
호주의 생우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06-07년 상반기 호주의 생우 수출은 호주 북부지역에서 기후 호전과 호주 생우 수출의 주요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호주 북부지역에서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송아지 출산비율이 높아진 결과, 수출용 생우가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스라엘의 셰켈(Shekel)화 대비 호주 달러가 12% 평가 절하됨에 따라 이스라엘 시장에서 호주산 생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대 이스라엘 생우 수출은 두 배로 증가하여, 이스라엘은 말레이시아를 제

치고 호주 제 2의 생우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7-08년 호주의 생우 수출은 소 공급의 확대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한 66만 두가 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호주 국내에서 소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호주 달러가 더욱 평가 절하되면 수출 시장에서 호주산 생우가 더욱 경쟁력을 지니게 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전망기간 기후조건이 평년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수출용 생우 공급이 늘어나 생우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1-12년까지 호주의 생우 수출은 32% 늘어난 79만 두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6 호주의 생우수출 전망



2. 돼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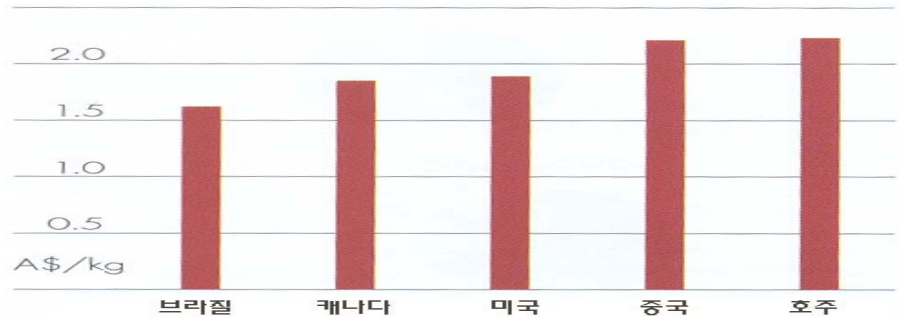
2006-07년 호주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량 감소와 늘어난 국내 수요로 인해 전년에 비해 14% 오른 kg당 2달러 65센트에 이를 전망이다. 쇠고기와 양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했다. 2007-08년 돼지가격은 전년에 비해 4% 상승한 kg당 2달러 75센트 수준이 될 것이다. 2007-08년 하반기에 쇠고기와 양고기 공급증가로 돼지 산지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2011-12년 전망기간 돼지고기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덴마크와 캐나다 등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경쟁재인 쇠고기와 양고기 실질 소매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2011-12년 호주 돼지고기의 실질 산지가격은 kg당 2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비용

호주 돼지고기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0%이다. 이중 70% 정도는 사료곡물비이다. 2006년 호주양돈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비는 높은 사료곡물비로 인해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경쟁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2달러 45센트(호주 달러) 정도의 생산비가 소요되는 반면 브라질, 캐나다, 미국은 각각 1달러 60센트, 1달러 80센트, 1달러 85센트가 소요된다.

그림 7 주요국의 돼지고기 생산비



호주에서는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볼 때 호주는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사료비와 가공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도축체중이 높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위 물량당 노동비와 사료비를 낮출 수 있다. 도축과정을 보면 도축체중과 상관없이 노동력이 일정하게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체중의 돼지가 도축되기 때문에 평균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격을 낮추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호주 양돈 업체는 통합(consolidate)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2년 호주의 암태지 사육 두수는 2007년 추정 사육두수보다 거의 5%가 적은 28만 두에 그칠 전망이다. 그 결과 2011-12년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6-07년보다 5% 적은 35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돼지고기 수입 계속 증가 예상

2006-07년 상반기 호주 돼지고기 수입은 호주 달러의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하였다. 2007-08년에도 호주 국내 돼지고기 산지 가격의 상승세와 호주 달러의 강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2% 더 확대될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요 수출국에서 돼지고기 수출가격의 하락이 호주 돼지고기 수입을 부추긴다.

중기적으로 호주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더라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1-12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6-07년 예상 수입량보다 23%나 많은 10만 7,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호주 돼지고기 수출은 감소 예상

2006-07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은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의 강세와 호주내 돼지고기 생산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4% 감소한 4만 1,500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07-08년에도 호주 돼지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국제 시장에서 미국과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호주산 돼지고기의 국제 수요가 줄어들어 호주 돼지고기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도 국제시장에서 주요 수출국들과 경쟁이 심화되어 호주산 돼지고기의 국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은 2006-07년 추정 수출량보다 21% 적은 3만 3,000톤에 머물 전망이다.

표 2 호주의 돼지고기 및 닭고기 전망

	단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11-12
돼지고기						
변식돈 두수 ¹⁾	천두	329	305	296	300	281
산지 가격						
명목	호주센트/kg	243	232	265	275	225
실질 ²⁾	호주센트/kg	259	239	265	268	199
도축두수	천두	5,342	5,370	5,200	5,300	4,975
생산량	천톤	389	389	374	381	355
1인당소비량	kg	23.9	22.8	23.2	23.6	23.7
수입 ³⁾						
신선	천톤	79.0	69.9	84.4	86.0	104.6
가공	천톤	2.5	2.4	2.5	2.4	2.4
계	천톤	81.5	72.3	86.9	88.4	107.0
수출 ^{3), 4)}	천톤	43.5	43.3	41.5	40.8	32.5
소매가격						
명목 ²⁾	호주센트/kg	1,071	1,158	1,170	1,214	1,260
실질	호주센트/kg	1,140	1,194	1,170	1,184	1,114
가금육						
생산량	천톤	792	817	842	847	907
1인당 소비량	kg	37.8	38.5	38.9	39.1	39.9
수출	천톤	19.8	21.6	22.0	22.0	26.0
소매가격						
명목 ²⁾	호주센트/kg	396	368	360	368	404
실질	호주센트/kg	422	380	360	359	357

주 : 1) 6월 30일 기준, 2) 2006-07년 호주달러, 3) 선적기준, 4) 가공돼지고기 미 포함

자료 : ABARE

3. 가금육

2006-07년 호주의 가금육 생산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한 84만 2,000톤으로 추산된다. 2007-08년에도 전년의 가뭄에 따른 곡물 사료비 상승으로 가금육 생산 증가는 단지 5,000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도 곡물 사료비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호주의 가금육 생산은 과거 5년에 비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2011-12년 호주의 가금육 생산량은 2006-07

년 예상 생산량보다 약 8% 많은 90만 7,000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등 대체재 가격의 강세에 힘입어 2007-08년 호주 국민 1인당 가금육 소비량은 39kg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중기적으로 볼 때 2011-12년 호주 국민 1인당 가금육 소비량은 40kg에 달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호주 달러가 약세를 유지할 경우 호주의 가금육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2011-12년 호주 가금육 수출은 2만 6,000톤 가량으로 2006-07년 추정 수출량보다 18%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양고기

향후 몇 년간 호주의 양고기 전망은 2006-07년 가뭄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대응양식과 가뭄의 재발 시기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 자란 양의 전망은 양모 시장 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2006년 가뭄으로 많은 양축업자들은 사육 규모를 줄였다. 이에 따라 2006-07년 양의 도축두수는 10% 증가한 130만두에 이를 전망이다.

비록 2007-08년 양모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놓이겠지만 양모 수익이 좋아서 양축업자들은 양 입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입식에 따라 양의 도축이 감소할 수 있다. 2007-08년 양의 도축두수는 계절 조건의 호전과 그에 따른 양의 입식 증가로 감소할 전망이다.

새끼 양의 경우 많은 양축농가들이 가뭄으로 수확하지 못한 작물을 이용하여 새끼 양을 사육하였기 때문에 2006-07년 전체 도축 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07-08년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적은 수의 어미양이 사육되어 사육 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2007-08년 새끼

양의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1% 감소한 1,880만 두에 이를 것이다. 또한 양고기의 산지 가격은 14% 상승한 kg당 3달러 70센트에 이를 전망이다.

표 3 호주 양 전망

	단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11-12
양고기 산지가격						
명목	호주 센트/kg	166	172	145	170	150
실질 ¹⁾	호주 센트/kg	177	177	145	166	133
새끼양 산지가격						
명목	호주 센트/kg	352	340	324	370	330
실질 ¹⁾	호주 센트/kg	374	351	324	361	292
새끼양 소매가격						
명목	호주 센트/kg	1,170	1,216	1,192	1,290	1,330
실질 ¹⁾	호주 센트/kg	1,245	1,254	1,192	1,259	1,176
양 사육두수 ²⁾	백만두	101	100	94	94	103
도축 두수						
양	천두	11,443	11,830	13,000	10,000	11,000
새끼 양	천두	17,331	18,666	19,000	18,800	19,700
양고기 생산량 ³⁾						
양고기	1,000톤	237	322	299	330	260
새끼 양	1,000톤	354	332	299	322	230
1인당 소비량						
양고기	kg	237	244	252	200	232
새끼 양	kg	354	382	390	387	414
수 출						
양고기 ⁴⁾	1,000톤	144	148	154	103	125
새끼 양 ⁴⁾	1,000톤	128	146	157	160	177
대 미국 수출	1,000톤	36	41	44	46	53
새끼 양 수출액 ⁴⁾						
명목	백만 달러	700	782	783	872	922
실질 ¹⁾	백만 달러	746	806	783	851	815
산 양 수출	천두	3,233	4,248	3,800	3,700	4,200

주 : 1) 2006-07년 호주 달러, 2) 6월 30일 기준, 3) 도체 기준, 4) 신선, 냉장, 냉동 선적 기준

자료 : ABARE

그림 8 호주의 새끼 양 도축 추이



해외 시장에서 새끼 양고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끼 양고기 가격이 호조를 나타내 양축농가들이 사육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이후 새끼 양고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새끼 양 사육에서 어미 양 또는 양모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으로는 양의 사육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새끼 양의 도축두수는 19.7% 증가한 1,970만 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끼 양고기 수요 강세 유지

수년에 걸친 수요 증가로 새끼 양고기에 대한 호주 국내 수요는 중기에도 확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끼 양고기 가격이 다른 육류에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므로 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제1의 양고기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양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미국내 국내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의 양고기 수입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연합에서 뉴질랜드 양고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세를 띠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대 미국 양고기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호주의 대 미 양고기 수출 증가로 이어질 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호주 내에서도 양고기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새끼 양고기 생산이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림 9 호주의 양 도축 추이



일본에서는 양고기 바비큐 레스토랑의 출현으로 양고기 수요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8%나 증가했다. 이것에는 일본의 쇠고기와 닭고기 공급량이 감소하고 이들 육류 가격이 높게 유지된 것이 한몫했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 호주의 대일본 양고기 수출은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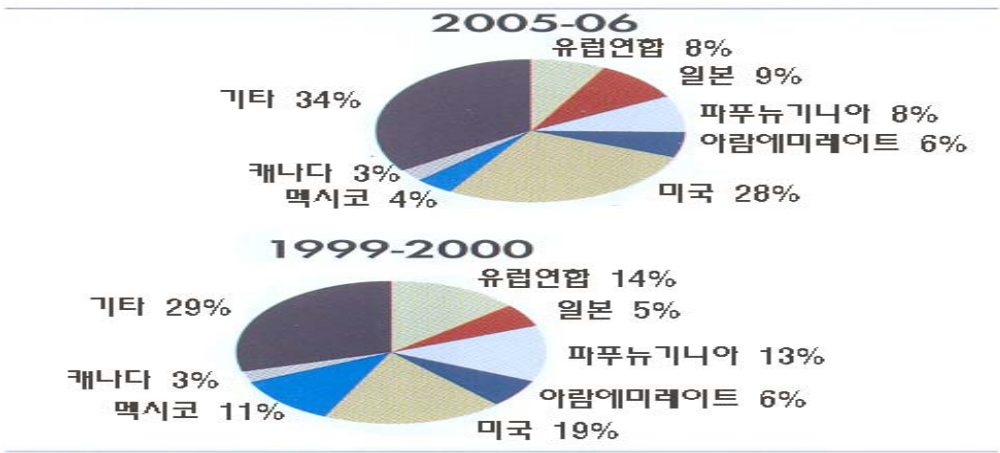
중동지역에서도 소비자 소득과 소비지출의 증가에 힘입어 새끼 양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6-07년 뉴질랜드의 대 중동 양고기 수출이 감소한 탓에 이 지역에 대한 호주의 양고기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에 걸쳐 호주의 양고기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어서 2007-08년 중동지역에 대한 호주의 양고기 수출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산 양 수출은 감소

2006-07년 산 양(live sheep)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공급이 감소하고 재 입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동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소득 향상으로 호주 산 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볼 때 호주의 산 양 교역은 호주 국내 공급 부족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다른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림 10 주요 수출국별 호주의 새끼양 수출



참고자료

Frank Drum, Ian Shaw, Anton Wood, Dale Ashton, Patrick Lindsay, “Meat” in Australian Commodities Outlook 2007, ABARE 발췌정리